

# 평화동~전주역간 최단 버스노선 신설

### 내달 20일부터 기존 팔달로 단일축에서 백제대로 포함 6개축 확대

전주의 남쪽과 북쪽 끝 지점인 평화동 꽃밭정이사거리부터 전주역까지를 최단시간에 연결하는 시내버스가 60년만에 처음 운행된다.

이는 전주·원주 시내버스가 노선개편을 통해 다음달 20일부터는 기존 팔달로 단일축에서 백제대로를 포함한 6개축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백제대로를 축으로 평화동~효자광장~화산체육관~서신동주민센터~전북대병원입구~전주역~아중역~기린봉으로 이어지는 100번 노선이 신설된다.

100번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됨에 따라, 평화동~서신동 방향, 서신동~전주역 방향으로 각각 출퇴근하는 시민들과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기존 309번 버스를 이용할 때보다 이동시간이 단축돼 보다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원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간, 평화동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해 서신동 이마트까지 이동하려면 평화동~꽃밭정이사거리~거마로사거리~화산소방서~안행교사거리~효자광장사거리~백제대로~이마트로 이어지는 309번 버스를 이용해야 해 총 30분 가량 소요됐다. 하지만 309번 버스 대신 백제대로를 타고 달리는 100번 신설노선을 이용하면 15~2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100번 버스가 생기면서 그간 출·퇴근시간 등 극심한 혼잡 겪거나 만차로 인해 버스 탑승이 어려웠던 309번 이용객들의 수요가 분산돼, 삼천동 주민들도 309번 버스를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설 100번 시내버스가 매 15분마다 운행되는 만큼, 평화동과 중화산동, 서신동 등 백제대로 주변에 거

주하는 시민들이 전주역까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시 홈페이지를 통해 달라진 노선개편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는 인터넷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상세한 노선도가 실린 40여 페이지 분량의 노선안내도 소책자 15만부를 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노선개편 시행 열흘 전부터는 모든 시내버스 승강장에 노선안내도를 부착하는 등 앞으로도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 전까지 달린 노선에 대한 집중 홍보와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원주군에서도 시행 전까지 기간선제 우선시행지역인 삼례, 봉동, 이서를 중심으로 마을별 노선도, 환승체계 등 이용방법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노선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주·원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그간 팔달로 중심의 남북 단일축으로 운행됐던 시내버스 노선을 △동산동(팔달로)~한옥마을 △동산동(동부대로)~아중리 △혁신도시~서부신시까지 △중앙동 △전주역(백제대로)~평화동 △송원동~서부신까지 △평화동 △평화동~한옥마을~우이동 등 총 6개 축을 중심으로 다양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번 노선개편을 통해 평균배차 간격이 4.6분 감소하고 평균운행거리도 한 대당 12.1km 줄어, 시내버스가 더 빨리 더 자주 다니고, 시민들의 버스 탑승 대기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이어져

### 전주연탄은행 저소득층 청소년 175만원 상당 위생대기탁

정유년 새해에도 생리대를 구입할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 돕기 위한 전주시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사업에 참여하는 따뜻한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금년에도 한창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기 여성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생리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상자와 중복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및 후원자 발굴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리대 지원사업은 전주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개설된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배너를 통해 신청하거나, 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신청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의 마음’ 사업에 보내준 804만7000원의 후원금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708명에게 생리대를 지원,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금년에도 한창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기 여성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생리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상자와 중복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및 후원자 발굴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리대 지원사업은 전주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개설된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배너를 통해 신청하거나, 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신청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

### 전통시장·중대형할인마트 등 470여 개소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전주시는 우리 고유의 민속 명절인 설을 맞아 오는 26일까지 설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 및 단속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구청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설 성수품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국산 농산물 220품목과 수입농산물·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가공품 161품목, 농산물 가공품 257품목이다.

특히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조기 등)과 육류(소·돼지 등), 과일류(사과·배 등), 나물류 및 한과류 등 설 성수품을 취급하는 전통시장과 중대형할인마트 등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470여 개소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 점검 및 단속에 나설 계획

이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하고,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노한형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집중 지도 단속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 사건으로 만난 유학생과 불륜 지속한 경찰관 파면

전북지방경찰청은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으로 만난 중국인 유학생과 4년 이상 불륜을 지속하며 수배 사실을 알려준 박모(40) 경사를 파면했다.

박 경사는 2013년 10월 전북경찰청 외사수사대 재직 당시 사기 피해사건 담당을 한 중국인 유학생 A씨(22)와 불륜 관계를 맺어 왔다.

심지어 내연녀 A씨는 2015년 1월 박 경사의 아들을 출산했고, 아들을 호적에 올려달라는 A씨의 요구에 박 경사는 수시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경사는 조사도중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들만은 자신의 아이라고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이 박 경사와 A씨의 유전자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원에 유전자 감식을 요청한 결과 두 사람의 부자 가능성은 99.9%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경사는 사건 관계자와 사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도 모자라 혼외자를 낳았고, 심지어 2014년에는 내연녀의 수배사실 까지 알려주는 등 경찰관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모든 과정을 고려한 결과 파면이 합당한 처벌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파면된 박 경사는 5년간 모든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고 절반의 퇴직금만 수령할 수 있다. /김민근 기자

# 전주풍남학사사무소, 26일까지 입사학생 모집

전주풍남학사사무소(소장 백기욱)는 미래 전주시를 이끌어 나갈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2017년도 입사학생을 모집한다.

올해로 개원 8년차를 맞은 풍남학사는 학사시설이 잘 갖춰진데다 입사학생 부담금이 입사비 7만원과 월사용

료 15만원으로 저렴한 서울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풍남학사 지원 자격은 수도권 소재 4년제 이상 대학에 진학이 예정된 전주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생으로, 해당 학생의 보호

자는 선발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올해 선발인원은 여학생 45명과 남학생 43명 등 총 88명이다.

시는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입사원서를 접수 받은 후, 학업성적과 생활정도 등을 심사해 오는 2월 1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 사고 위장해 부인 살해한 50대 남편 도주 우려 구속

부인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남편 최모씨(55)가 도주우려로 구속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난 15일 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차에 태워 사고로 위장한 최씨를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4일 6시 40분께 군산시 개정면의 한 농수로서서 부인 고모씨(53)를 살해하고 시신을 본인의 차량에 태우고 불을 질러 교통사고로 사건을 위장하려 했다.

하지만 차량화재 전 고씨가 사망했다는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식 결과와 주변 폐쇄회로 CCTV 등으로 인해

달미가 잡혔다.

살인사건 전환 직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6시 20분께 남양주시의 한 성인 PC방에서 도박게임을 하던 최씨를 붙잡았다.

최씨는 최근 대장암을 앓고 1년 6개월가량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 앞으로는 사망보험금이 2억 4,000만원에 달하는 6개의 생명보험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체포 직후 혐의를 강력 부인했으나 여러 증거를 내밀자 살인 사실만 실드했다”며 “아직 범행동기와 범행방법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